

산업보건 주요뉴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일 국민과 함께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며 철저히 대비해야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장마철 대비
전국 건설 현장(700여 개)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마철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00여 곳에 대하여 장마철 대비 불시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토사),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대형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계획 서류에 대한 단순한 점검보다는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조치를 했는지를 집중 감독한다.

감독을 하기 전에는 장마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하청이 합동 자체 점검(6월 10일~6월 21일)을 하도록 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장마철 위험 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 등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마철 위험 요인별 안전보건 대책과 자체 점검표를 담은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 안전 관리가 불량한 건설 현장과 장마철 위험 현장을 불시 감독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확인하며,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알리고 앞으로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은 집중 호우와 침수 및 폭염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아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비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하면서 원·하청의 합동 자체 점검과 자율 개선을 충실히 하며 장마철 건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한편 “건설 사망 사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감독을 시행하여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준수를 위해 기획 감독 등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6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
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키로 하였다.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폭염일수도
10.5일(30년 평균)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5
년간 온열 질환 산업 재해가 계속 늘고 있으며, 대부분이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어 옥외 작
업 노동자의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
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
련 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개소(장마철 대
비 건설 현장 기획 감독 병행 700개소+기획 감독 300개
소)를 대상으로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
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 지를 집중해서 감
독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라디오 방송과 안전보건공
단의 전국 40개 전광판, 사회 관계 서비스망 등을 활용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을 흥
보하고,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행 지침을 배포할 예
정이다.

이을러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
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전 방위적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사업장 화재·폭발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담은 책자(핸드북) 보급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화
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자를 보급한다. 이번 책자
는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 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사
업장에 사고예방 핵심 대책 등을 소개하여 화재·폭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제작됐다.

내용은 △화재폭발 현상의 이해 △유해·위험물질 파악방
법 △사고 발생률이 높은 물질·설비별 핵심대책(OPL) △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자연재해 및 날씨(계절)
에 따른 예방대책 △화재·폭발·누출 사고사례 등 6개
주제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책자는 산재 통계를 기반으
로 사고 발생이 잦았던 물질과 설비에 대한 내용 중심으
로 제작되어 사업장의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고 화재·폭
발 대응책 마련에도 도움을 준다. 책자는 공단 누리집에
서 확인할 수 있다.